



6·25전쟁과 이라크전에서의 심리전 사례와 장차전 적용방안



합참 심리전계획담당
중령 김 종 현

[약 력]

- 육사 40기 임관
- 육군대학 한국전쟁사 교관
- 제25보병사단 71연대 1대대장
- 제1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 현, 합참 심리전과 심리전계획담당

[목 차]

- I. 서 론
- II. 심리전 개념
- III. 6·25전쟁에서의 심리전 사례
- IV. 이라크전에서의 심리전 사례
- V. 장차전에서의 심리전 양상과 적용 방안
- VI. 결 론



I. 서론

2003년 5월 1일 미국이 이라크 종전을 선언한 이후 최근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패권 및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인해 국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는 6·15 남북공동성명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남북 장성급 회담 등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남북간 경제, 문화 등의 교류가 활발히 일고 있지만, 북한은 장기적 경제난 속에서도 대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군사력을 체제생존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선군정치를 지속 표방하면서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대남 적화전략을 고수하며 지상군 전력의 70%를 전방에 집중 배치하고 한반도 전체를 북한군의 사정권에 둬으로써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남북 양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4주년인 2004년 6월 4일,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에 관한 합의

를 실시하였다.¹⁾ 하지만 북한의 기본적인 통일정책인 대남 적화전략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아직도 국가적 차원의 대남심리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신문과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 보도 원문을 그대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주한미군 철수, 핵관련 주장, 이라크전 반대 등 반전평화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보안법 폐지와 징병제 반대,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을 통일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등의 내용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등 사이버테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1세기 미래전에서는 정보전, 우주전, 미사일전 등 새로운 전쟁영역의 출현으로 단일무기체계에서 복합무기체계로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쟁양상의 획기적인 변화와 대북포용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심리전 책동은 한국적 여건에 맞는 미래지향적 심리전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장차전에서의 효과적인 심리전 수행을 위해 6·25전쟁과 이라크전에서 적용된 심리전 사례들을 알아보고 장차전에서의 심리전 양상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심리전 개념과 3장에서는 6·25전쟁에서 적용된 몇 가지 심리전 사례들을 소개하고,

주 1)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04. 6. 4).



4장에서는 이라크전에서의 심리전 적용 사례와 5장에서는 장차전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전쟁양상 속에서 어떻게 심리전을 적용시킬 것인가를 제시함으로써 끝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심리전 개념

1. 개요

심리전은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비롯된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상황을 전쟁이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오랜 전쟁을 통하여 그 개념이 정립되고 발전되어 왔다. 심리전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군사평론가이며 역사가인 풀러(J. F. C. Fuller)로서 “영국과 독일의 탱크전”이란 논문을 통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면서 1920년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심리전 용어는 군사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전쟁(War 또는 Warfare)’이란 개념보다는 ‘활동’의 개념으로 쓰여왔으며 특히, 공산권에서는 심리전이 ‘선전선동(Propaganda and Agitation)’으로 통용되는 등 개념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다 1948년 미국의 심리학자 라인버거(Paul M. A. Linebarger)에 의해 심리전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었다. 그는 심리전이란 “광의에 있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군사적인 모든 조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심리학이라는 과학을 이용한 것이며, 협의로는 대적선전이나 기타 선전을 보완하는 군사적·외교적·정치적 제반 조치의 이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심리전은 전 국민의 의지와 신념, 충성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신문, 라디오, 영화, 인쇄물, 전단, 확성기 등 가용매체를 통해 전략적, 전술적 응용의 심리전 개념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군에서도 심리전에 관한 연구를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최초로 1951년 2월 육본 작전참모부에 심리전과가 신설되어 연구를 실시해 오다, 본격적인 연구는 1987년에 육본 민사심리전참모부가 창설²⁾된 이후였으며 1990년 10월, 합참에 민사심리전실이 창설되어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지금은 민사심리전참모부에서 심리전 업무를 수행중³⁾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명확한 개념의 독자적 심리전 수행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태이며 연합사의 심리전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2) 육일명 제49호('87. 8), 심리전과→대북심리전처(3개과).

3) 합참 조직개편 시행계획('05. 11. 17).



특히, 용어면에서 아직까지 ‘심리전’과 ‘심리작전’의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급히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심리전과 심리작전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심리작전 교범에는 “심리작전이란 국방 및 군사작전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된 정보나 기도(企圖)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전달하여 상대 국가, 집단, 단체 및 개인의 견해, 감정, 태도와 행동을 주체측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작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과 야전교범 33-1에는 같은 개념으로 ‘심리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합참 작전계획이나 기타 예규상에는 ‘심리전’과 ‘심리작전’을 구분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용어 사용의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심리전’은 전쟁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 대상이 적에게만 한정적으로 지향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계속적인 운용이 필요하므로 심리작전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대적 국가나 그 외 국가, 그리고 대내적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유리한 감정과 태도, 행위 등을 조성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획적인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제반 심리적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심리작전’은 작전형태의 하나로 공격작전, 방어작전, 공보작전, 민사작전, 특수작전 등의 용어와 동격으로 전술적·운용적 차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포괄적, 일반적 개념의 용어로 사용할 때는 ‘심리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작전형태나 운용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심리작전’이란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미 육군에서는 심리작전(Psychological Operations)이란 용어를 미 해군 대령 자카리아스(Ellis M. Zacharias)가 일본의 항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작성한 특수작전계획에서 최초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심리작전(Psychological Operations)은 작전의 한 형태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 전쟁으로서의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이란 용어보다는 하위의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전의 분류

심리전은 작전지역의 공간과 적용수준, 상황에 따라서 표적대상별, 운용목적상, 출처 및 시행매체별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심리전에는 표적대상에 따라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민심동요 방지와 국민정신



을 통합하여 총력전 수행태세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내심리전과 우방국이나 중립국 또는 적대관계가 아닌 국가나 집단에 대하여 수행되는 대외심리전 또한, 적군 및 주민을 대상으로 내부혼란 조성, 전투의지 상실, 사기저하 및 패전의식 확산, 민심이완 등을 유발시켜 군사작전의 승리를 달성하고자 실시하는 대적심리전 등이 있다.

둘째로, 심리전은 운용목적에 따라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심리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 전략적 심리전은 국가목표 및 목적에 유리하도록 적국의 태도, 인식, 행동에 영향

을 주기 위해 합참, 국방부 및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심리전으로서 대외·대적·대내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작전적 심리전은 작전지역 내에서 합동부대 지휘관의 활동 및 전략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작전으로 군사령부나 군단급에서 수행하는 심리전이며 대적·대내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술적 심리전은 전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급 이하 제대에서 수행하는 심리전으로서 대적·대내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운용목적에 따른 심리전 분류

구 분	전략적 심리전	작전적 심리전	전술적 심리전
제 대	합참, 국방부 및 정부기관	군사령부, 군단	사단급 이하
대 상	대외·대적·대내	대적·대내	대적·대내
방송작전(예)	공·민영 라디오 및 TV 방송, 군 라디오 방송	지역 라디오 방송, 기동 확성기 방송	기동 확성기 방송

셋째로, 출처별 분류로서 심리전을 수행하는 주체가 스스로 출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백색심리전과 심리전을 수행하는 주체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실시하는 회색심리전 또한, 출처를 모방 및 도용하여 실시

하는 흑색심리전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매체별 분류로는 전단, 화보, 유인물 등 인쇄매체를 이용한 심리전과 TV, 라디오, 확성기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심리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사이버매체를 이용한 심리전 등이 있다.

주 4) 합동교범 3-14 「합동심리작전」 심리작전 분류.



4. 심리전의 제한사항

심리전은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 타격을 가해 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인간의 심리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전은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여 무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심리전활동 후에 반응이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성공이나 실패 여부를 측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효과측정이 곤란하다.

또한, 심리전은 국가정책 및 군사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심리전은 작전적, 전술적 차원의 심리전과 함께 전략적, 국가적 차원의 심리전과 상호 연계되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심리전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전매체의 적용 제한이다. 심리전매체는 표적대상에 따라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식수준이나 특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적합한 매체를 사전에 선정·적용해야 한다.

Ⅲ. 6·25전쟁에서의 심리전 사례

1. 개요

6·25전쟁은 극동지역에서 강대국간의 세력다툼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미국과 중공이 개입하면서 3년 1개월 동안의 지

리한 공방전 끝에 중국에는 그것도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전쟁이 중단된 한민족의 역사적 비극이었다. 초기전투에서 한국군은 허술한 경계태세와 지휘부의 무능으로 사실상 괴멸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미군의 개입으로 인해 이를 막을 수 있었다. 미군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선까지 밀리게 된 한국군과 UN군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북한군을 저지하는데 성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불과 1개월만에 한·만 국경선까지 진출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38도선까지 후퇴하면서 작전의 주도권을 다시 중공군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미국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맥아더 장군은 진정한 6·25전쟁의 승리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확전이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미국 지휘부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미국은 자국의 실리주의를 취하면서 맥아더 장군을 해임하고 축소지향적 현상유지 형태의 전쟁으로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정책을 채택하여 현 휴전선 일대에서 지리한 교착전과 밀고 밀리는 진지쟁탈전 등을 실시하면서 휴전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국민은 이번 전쟁을 통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희망 때문에 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대대적 시위를 전개하여



한·미간에 견해차가 커졌으나 미국은 대통령 특사가 내한하여 한국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는 전쟁의 폐허와 상흔을 남기고 휴전선이라는 새로운 분단을 이루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조인되었다.

2. 초기전투에서의 남북한의 심리전

개전초기 북한군과 한국군은 전쟁준비면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었다. 북한군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수립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남침계획이 있었지만, 한국군은 당시 변변치 않은 방어계획에 의해 사단급 훈련은 전혀 받아보지 못한 부대들이 전선에 배치되어 있었다.

북한의 남침계획은 당시 북한군 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선제 타격작전계획⁵⁾’으로 제2차 세계대전시 독·소전의 영웅이자 작전전문가로 전투경험이 풍부한 바실리예프 중장 등 소련 군사고문관의 도움으로 만든 극비의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1950년 6월 말에 전면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한편, 인민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며,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한국군은 “1950년 춘계에 적이 38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한 1949년 연말 종합정보보고서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계획을 1950년 3월 25일 에야 비로소 서둘러 예하대에 하달하여 38도선 일대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술적 목적의 방어진지라고는 전혀 없었고, 남북으로 왕래하는 인원이나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경비초소뿐이었으며 시설이라야 콘크리트 건물이 고작이었다. 또한 병력과 장비면에서도 북한군에 비해 1:2와 1:4 정도로 열세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군은 북한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적의 심리전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중앙방송(KBS)은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07:00에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도하였는데 실상과 다른 오보를 함으로써 개전초기 많은 혼란과 시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이미 전방에서는 한국군의 경계진지가 붕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국군이 건재하니 전 국민은 염려하지 말라”, “웅진의 17연대가 해주로 돌입했다.”는 등 사실과 맞지

주 5) 1992년 8월 29일에 연합통신이 러시아 군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코르토크프 박사로부터 입수.



않는 내용을 방송과 일간신문을 통해 동시에 발표하였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평상시 입버릇처럼 북진통일을 주장하여 왔고, 신성모 국방장관은 국회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북진명령만 내리면 아침을 먹고 38선을 출발하여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일삼아 온 터라 이를 빌미로 북한은 오히려 남한이 북침을 감행했다는 흑색선전을 늘어놓으면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남한과 이승만 정부에 떠넘기는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초기전투의 사례를 보면서 진실과 어긋난 보도나 선전은 국민들을 대혼란과 공황에 빠뜨리게 되고 그 허위성이 폭로되었을 경우에는 실망과 낙담, 심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만약 전선지역에 벌어지는 전황들에 대해 정확한 보도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국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올바르게 하여 북한군의 심리전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으로 역심리전을 전개했다더라면 전쟁 초기의 무기력한 패배와 전선 붕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3. 스미스부대의 자만이 부른 심리적 공황

전쟁개시와 동시에 전 전선에서 한국군의 방어선이 붕괴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1950년 6월 28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게 되었다. 8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UN은 북한의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회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의한 군사적 조치를 시작하였고, 6월 30일에는 지상군 투입결정이 이루어져 미 8군사령관 워커(Richard L. Walker) 중장에게 주일미군 중 규슈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24사단을 한국에 파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미 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은 선견대로 제21연대 제1대대장 스미스(Charles B. Smith)를 지휘관으로 하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한국전에 투입하였다. 스미스부대는 7월 4일 서부전선의 최전선부대가 되어 오산북방 죽미령 일대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미스부대는 비가 내리는 악조건속에 방어진지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차를 동반한 북한군 제4사단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스미스부대는 105밀리 곡사포와 75밀리 무반동총으로 밀려 내려오는 전차를 향해 공격을 가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이후 계속해서 더 많은 북한군 전차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스미스부대원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장공포증으로 진지를 이탈하는 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사실 그들은 북한군이 미군의 참전 사실만 알게 되면 겁을 먹고 바로 퇴각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북한군의 전력도 그리 강하지 않아 쉽게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스미스부대는 죽미령전투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만 해도 일본 규슈에서 평화롭고 여유있게 낭만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또 그들은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슴에 안고 자국의 명예를 위해 한국으로 건너왔으며 북한이라는 공산국가는 미국과는 상대도 안되는 아시아 변방의 약소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고 예상보다 강한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처음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극도의 두려움과 전장공포증에 사로잡혀 전투의지를 상실하고 있었다. 결국 죽미령전투는 북한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낙동강전선까지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해보고 한국군과 미군이 밀리기 시작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북한군 제2군단의 작전참모였던 이학구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고 미국의 참전 가능성에 관해서 들은 바도 없었으며 오산에 미군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몹시 놀랐다.”고 하였다.⁶⁾ 그러나 북한군의 놀라움은 미군과의 전투를 포기할 정도의 심리적 충격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한군에 대한

미군의 심리적 충격이 더 크게 작용했고 북한군에 대한 과소평가는 스미스부대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원인이 되었으며 결국 심리적 공황과 마비현상으로 스미스부대의 전투의지를 파괴시켰다. 이러한 전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투에 임하는 부대원의 전투의지와 심리상태는 전장의 불확실성, 우연성, 정신적 또는 육체적 마찰의 영역 속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목적을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고 적의 국토를 점령하며 적의 의지를 굴복시키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불란서의 듀피크도 그의 저서 「전투연구」에서 ‘전투란 의지 대 의지의 싸움이다. 고로 전진할 결심이 있는 자는 승리한다’라고 말하였듯이 전쟁에서 전투의지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심리적 마비와 공황을 유발시켜 전투의지를 파괴하거나 이와 반대로 전투의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4. 사단장의 술선수법을 통한 심리전

1950년 8월에 접어들면서 한국군과 UN군은 낙동강 방어선 작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주 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6·25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 8군사령관인 위커 장군은 당시 각종 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낙동강선을 최후의 교두보로 선정하고 이 선에서 총 반격을 실시하겠다는 작전복안을 갖고 있었다. 위커 장군이 강조했던 작전개념은 '기동과 역습'의 개념으로 방어선의 후방에 기동화된 예비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방에서 적의 공격으로 진지가 피탈되면 바로 역습을 실시하여 돌파구를 회복함으로써 방어선을 유지한다는 개념이었다.⁷⁾ 이러한 개념은 방어선의 대부분이 하천과 고지군 등 천연장애물로 형성되어 외곽방어선의 유지가 용이하고 도로망이 발달되어 내선작전에 적합했기 때문에 수립 가능했다. 한편, 북한군은 부산점령을 목표로 한국군과 UN군이 강력한 방어진지를 형성하기 전에 신속한 추격작전으로 낙동강을 도하하려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구방면에 주공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모든 접근로에서 공격하여 어느 축선에서든지 돌파구가 형성되면 이를 확대하여 후방 깊숙이 진출하도록 하였다. 적의 주공이 지향된 대구지역에는 한국군과 미군의 총 3개 사단이 배치되어 대구를 중심으로 왜관 일대는 미 1기병사단이, 다부동 일대에는 한국군 1사단이, 그 위쪽으로는 한국군 6사단이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군 1사단은 다

부동 일대에 집결한 후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계획된 진지로 진출하려 했으나 북한군 제15사단이 이보다 먼저 유학산 일대까지 진출함으로써 한국군 1사단의 중앙과 다부동이 점령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위커 장군은 이 지역에 미 27연대를 보내 보전협동으로 적진 돌파작전을 지시하였다.

미 27연대는 전차를 동반한 공격으로 돌파구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전차 진출로의 우측 견부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의 저항에 의해 진출이 불가능하자 미 27연대장 마이케레스 대령은 한국군 1사단에게 이에 대한 위협 제거를 요구해 왔다. 당시 한국군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은 예하 1개 대대에 이 견부를 점령토록 지시하였으나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미 27연대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만약 우측 견부고지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미 27연대는 철수하겠다고 하자 백선엽 장군은 직접 대대를 방문하여 대대원들에게 일장훈시를 통하여 전투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우리는 여기서 후퇴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우리의 갈 곳은 바다 뿐이다. 여기서 싸우다 죽겠는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겠는가, 사단장인 내가 직접 공격하겠다. 여러분도 내 뒤를 따르라, 내가

주 7) W. G. Robertson, 「낙동강에서의 반격」.



공격하다 도망가면 여러분이 나를 쫓라. 그러나 여러분이 도망가면 내가 여러분을 쫓겠다.”라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의 운명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가슴 찡하고 뭉클한 내용의 정신교육을 한 뒤 대대원은 다시 고지를 향해 공격하였다. 당시 전사에 의하면 700고지나 되는 고지를 단 30분만에 탈취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사단장의 눈물겨운 호소가 당시 대대원들의 전투의지를 고양시킨 계기가 되었고 결국 다부동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부동전투에서 승리의 원동력은 사단장의 솔선수범과 눈물겨운 호소를 통한 대대원의 전투의지 고양이었다. 이 전투는 성공적인 지휘통솔의 대표적인 전례로 오늘날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사단장이 솔선수범을 통해 부대원들에게 행한 일종의 심리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심리전은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쟁수단으로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무기를 조작, 운용하는 것은 역시 인간이기에 무기체계와 함께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원에 대한 전투의지를 고양시키고 사명감을 일깨워 줌으로써 얻어지는 전장심리의 시너지효과는 심리전의 한 분야로서 장치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 인천상륙작전을 통한 대적 심리전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7월 초에 맥아더 장군이 그의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에게 계획 작성을 지시하여 시작되었으며, 작전참모부장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이 이끄는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JSPOG)에 의해 발전되어 ‘블루하트(Blue Hearts)’라는 암호명칭이 부여되었다. 이 블루하트계획은 최초 예상보다 빠른 북한군의 전진으로 일단 취소가 되었지만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은 인천, 군산, 해주, 진남포, 원산, 주문진 등 해안지역을 상륙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크로마이트(Chromite)라는 이름으로 인천상륙계획(100-B), 군산상륙계획(100-C), 주문진상륙계획(100-D) 등 3개 안을 작성하여 그 개략계획을 7월 23일 미 극동군사령부의 관계참모부에 제출하였다. 그중에서 인천을 상륙지역으로 하는 계획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맥아더 장군은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에 지시하여 작전계획 100-B(인천상륙)를 완성토록 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이 계획을 발전시키는 동안 미 합동참모본부는 상륙지역을 인천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결코 찬성하지 않았다. 특히,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Lawton J. Collins) 대장과



해군 참모총장 셔먼(Forrest P. Sherman) 대장 그리고 미 해병대의 관계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 계획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의 핵심은 인천지역은 조수, 수로, 해안조건에서 상륙작전에 많은 제한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륙지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상륙지역에 대한 의견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맥아더 장군은 8월 23일 동경에서의 상륙작전회의를 통해 미 육군 및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반대의견을 무마시키게 된다. 맥아더 장군은 “적은 후방을 무시하고 있고 병참선이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으므로 서울에서 신속히 이를 차단할 수 있으며, 적은 사실상 모든 전투부대를 낙동강 일대에 투입한 관계로 예비병력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회복할 능력은 없다. 또한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을 빼앗긴 것은 곧 이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고 서울을 되찾아야만 한국군 및 국민들에게 패배감을 없애고 서울탈환의 성취감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그는 “우리가 인천상륙을 반대하고 있듯이 적들도 인천상륙이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곧 기습을 달성할 수 있고 적에게 심리적 마비와 공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이를 탈환했을 때 북한군과 한국군 쌍방이 갖는 심리적 요

인을 중요시 하였다. 수도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북한군에게는 자신들의 배후와 병참선이 차단되고 낙동강전선에서 고립되어 괴멸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자괴감으로 더 이상의 전투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고, 반면 한국군에게는 수도 서울을 적에게서 다시 되찾았다는 승리감과 그 여세를 몰아 내친김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감으로 전투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다는 두가지 요인이 심리적 상승과 시너지효과로 나타나 현 위기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맥아더 장군의 이러한 설득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인천상륙작전에 동의를 하였고, 미 합동참모본부도 결국 8월 28일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승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맥아더 장군은 8월 30일 인천상륙작전 명령을 하달하여 9월 15일 역사적인 작전이 실시되었다. 이 작전으로 인하여 북한군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작전한계점에 이르게 되고 6·25전쟁의 전세가 역전되어 한국군 및 UN군은 반격작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결국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은 낙동강까지 몰린 위기의 조국을 구하게 한 일대 전환점이 되었으며, 한국군과 UN군은 최소예상선과 최소저항선의 인천이라는 장소로 기동하여 적에게 물리적, 심리적 파괴를 강요함으로써 적의 전투의지를 파괴하고 맥아더 장군이 추구하고자 했던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는 통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최첨단 정밀무기와 C4I시스템의 개발 필요성만을 생각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대전에서 유형적인 전투력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무형의 전투력 즉, 인간의 의지를 좌우하는 심리적인 측면이라 생각한다. 고대나 현대 군사전략가들의 전쟁이론을 통해서 볼 때도 전투에 있어서의 전투원의 의지는 전투승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전장의 마찰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작전술적, 전술적 승리이자 북한군에게 적용된 대적심리전을 통한 승리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치전에서도 유형전력의 연구와 함께 인간의 행동을 포함한 의식 또는 무의식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전장심리학의 연구와 적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중공군의 심리전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에서의 반격작전으로 한국군과 UN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으로 접근하자, 과연 이 선을 돌파하여 계속 공격을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38도선 돌파는 한국통일이라는 새로운 목표와 더불어 이 문제로 인해 중공과 소련의 개입을 초래하여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통일을 바라는 대한민국 정부와 6·25전쟁의 진정한 승리를 원하는 맥아더 장군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38도선 돌파를 허가하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9·27훈령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9·27훈령은 UN군의 38도선 돌파를 허용하되 작전목표를 북한군 격멸이라는 군사목표에 엄격히 한정하고 특히, 중공과 소련과의 충돌을 피하라는 작전지침이었다. 그러나 공산진영에서는 중공군 총참모장 대리인 38도선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서 주중 인도 대사 파니카(K. M. Panikkar)에게 “중공은 미국이 38도선을 돌파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을 전하였으며 8월 1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대표 말리크(Yakov A. Malik)도 6·25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하고 조기종결을 주장하여 “만일 한국전쟁이 더 오래 계속된다면 그것은 전쟁을 불가피하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UN군의 38도선 돌파를 사전에 봉쇄하려 하였다. 이러한 공산진영의 경고는 미 합동참모본부가 38도선 돌파를 결정하게 되면서 중공군의 개입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메시지가 되었다.

결국 9·27훈령에 의거, 맥아더 장군은 북진작전에 대한 구상을 명령화하여 10월 2일 UN군 산하 전 부대에 북진명령을 하달하였으며 한국군과 UN군은 이후 상상을 초월한



진격속도로 북진을 실시하여 서부전선의 미 8군은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하고 동부전선에서는 미 10군단이 10월 26일에 원산상륙을 실시하였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미 8군 사령관과 미 10군단장에게 최대한의 속도로 국경선까지 진격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우려한 중공과의 충돌이 빚어지게 되었다.

아군이 북진작전을 실시함으로써 갑자기 광대한 수복지구를 갖게 되어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강력하고도 계획적인 선무심리전 활동이 필요했고 따라서 선무활동을 위해 편성된 별도 부대의 전문적인 심리전활동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심리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중공의 모택동은 한국군이 북진을 단행하던 10월 1일 스탈린과 김일성으로부터 파병지원 요청을 받고 ‘순망치한(唇亡齒寒),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참전을 결정하였다.⁸⁾ 중공군은 한국군과 UN군이 평양을 점령하던 10월 중순경부터 압록강을 도하한 후 청천강 북쪽까지 진출하여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한국군과 UN군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 한국군과 UN군은 중공군의 개입을 우려해 왔으나 그들의 참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였고, 청천강 일대까지 진출한

한국군과 UN군은 이미 중공군의 개입시기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오판이었다. 이 엄청난 오판으로 중공군의 대부대와 조우하여 한국군과 UN군은 공격이 돈좌되고 중공군의 기습적인 공세로 인해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특히 야간작전시 팽과리와 북, 징 등을 이용한 중공군의 함화공작은 한국군과 UN군에게 엄청난 심리적 공황과 마비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중공군의 참전은 전쟁을 또 다른 국면으로 바꾸어 놓아 아군의 전세가 수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군과 UN군은 38도선 일대로 다시 후퇴해야만 했고 결국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의 실현 기회가 목전에서 사라졌으며, 38도선 일대까지 밀려 내려온 한국군과 UN군은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실시함으로써 현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교착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중공군의 개입은 한국전쟁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한국군과 UN군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충격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은 북한군에게 심리적 공황과 물리적 마비를 유발시킴으로써 한국군과 UN군을 단번에 낙동강전선에서 38도선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하였지만, 중공군의 개입은 반대로 한국군과 UN군에게 심리적 공황과 물리적 마비를

주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5권).



유발시킴으로써 전선을 다시 38도선까지 끌어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공군의 개입과 함께 전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그들의 심리전술 즉, 인해전술과 야간 함화공작은 한국군과 UN군에게 또 다른 하나의 공포이자 공황이었으며 당시 중공군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전투력과 화력,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미군도 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중공군의 개입은 한국군과 UN군에게 전략적 패배와 함께 심리적 패배를 안겨다 준 일대 사건이었으며 6·25전쟁에서 심리전을 적용한 또 하나의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7. 소 결 론

지금까지 소개한 한국전쟁의 사례들은 주요국면 속에서 전쟁의 주도권과 국면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초기전투에서는 한국군의 오보와 북한군의 흑색심리전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심리적 혼란과 공황으로 당황하였으며, UN의 결정으로 미군이 한국전쟁에 투입되고 자신들이 투입된 사실을 북한군이 인지하기만 하면 바로 철수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미군이 북한군과 죽미령 일대에서 최초전투를 실시하여 미군이 대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시 미군은 일본에서 주둔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름만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전쟁에 투입되어 북한군의 저돌적인

공세와 전차를 동반한 막강한 전력에 심리적 마비와 공황으로 뿔뿔이 패주하고 말았다. 이후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이 낙동강선까지 밀렸던 한국군과 UN군은 맥아더 장군의 기지와 결단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북한군에게 심리적, 물리적 기습을 달성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고 6·25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파죽지세의 기세로 북진작전을 실시하여 한·만 국경선 근처까지 도달했던 한국군과 UN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다시 전세가 역전되어 전쟁은 초기상황으로 환원됨으로써 38도선 일대에서 휴전시까지 계속 물고 물리는 진지전과 고지쟁탈전 등의 교착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전쟁의 진행과정 속에 나타난 몇 가지 심리전 적용 사례들은 전략적·작전적·전술적인 조치들과 함께 쌍방의 전투의지와 관련된 심리적 조치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었고, 이러한 조치들은 전세를 역전시키거나 국면을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첨단과학무기와 정밀유도무기, 고도의 C4I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차전에서도 이러한 무형전력 즉 전투원의 전투의지와 관련된 심리적 조치들은 계속 적용될 것이고 더욱 발전된 심리전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IV. 이라크전에서의 심리전 사례

1. 개요

이라크는 몽골의 침입,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제국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간 외침을 받아오다 1921년 독립한 이후 불안정한 가운데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집권하여 이란 전쟁, 걸프전, 이라크전쟁 등을 치렀다.

미국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국제테러집단을 지원해 왔으며, 세계평화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여 4월 15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함으로써 실질적인 승리를 하였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5월 1일 전쟁 승리와 종전을 선언하였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조국수호전쟁의 기둥으로 믿었던 공화국 수비대와 페다인 민병대는 미·영 연합군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전에 전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발적인 저항을 벌이다 패배하고 사담 후세인과 그 정권도 제거되었다.

이처럼 미국이 이라크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도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위협국가에 대한 선제 저지 안보전략과 최첨단 정밀유도무기에 의한 충격과 공포 군사전략 그리고 우수한 지식과 정보력에 기초한 지상군 및 해·공군의 신속 결정적

기동작전과 효과중심작전, 네트워크중심작전이 통합된 신속 결정적 작전술에 의한 첨단정보과학군의 합동작전과 과학적 심리전을 적용한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2. 가용매체의 통합을 통한 심리전

미국은 유엔과 국제적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라크를 선제공격했다. 미국의 심리전은 이라크전쟁의 대외적 공식 목표인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위협,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하는 '정의의 전쟁'으로 부각시켜 국제적 지지획득을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실질적 이익으로서 대내적 비공식 목표였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와 아랍지역에 민주주의체제의 확산, 국가경제번영과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이해 등을 고려하여 실시했다. 따라서 미국은 심리전 목표인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 국제적 지지획득과 미 국민의 단결, 군 애국심 고취, 사담 후세인 제거 등을 위해 군사작전과 배합하여 치밀하게 전쟁을 진행시켰다.

미국은 충격과 공포 군사전략에 의한 전쟁수행과 아랍국가들의 반서방 및 반기독교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전쟁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아래 이라크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부각시켜



면서 사담 후세인 제거의 필연성, 이라크인들의 고통해방 등의 심리전을 집중 실시했다.

또한, 미국은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라크로부터의 군사작전과 미군의 정보체계를 방호하고 반대로 이라크의 정보체계에 영향을 미쳐 전쟁의 목표달성과 특정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이라크 지휘통신 체계에 대한 물리적 파괴와 전쟁지도부에 대한 정보작전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공세적 심리전을 위해 가용매체를 통합 집중 운용하였다.

즉, 미국은 심리전 목표를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과 목표의 와해에 두고 전자전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 물리적 파괴, 군사기만과 공보작전을 통한 심리전 등을 수행하여 후세인과 전쟁지도부에 대해 국민들로부터의 분리와 민심이반 등의 효과를 얻어냈으며 정밀타격 등을 통한 국가급 지휘통신체계의 마비와 충격, 공포 작전 등을 통한 심리적, 물리적 마비효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외·대내·대적 심리전을 위해서 사실을 알리는 공보가 포함된 홍보, 이성애 호소하는 선전, 합리적 이해를 위한 설득, 옳고 그름을 따져 정당성 내지는 부당성 여부를 밝혀주는 비판,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과 유언비어, 미신 등의 수단을 이용했다.⁹⁾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4심리전단은 티크리크 방송, 이라크 해방의 소리 방송, 코만도솔로 방송 등을 통하여 전략 및 작전적, 전술적 심리전을 실시했고 특수부대 요원들은 사담 후세인 제거와 대량살상무기 증거확보, 중요표적 폭격유도, 중요한 공작 활동을 위한 심리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사이버작전과 전단, 각종 민간방송 및 인쇄매체 등 다양한 수단과 가용매체를 활용한 효과위주의 공세적 통합심리전을 수행하였다.

3. 첨단과학장비 및 전격전을 통한 심리전

미국의 다양한 정보획득 및 표적처리시스템은 적이 숨어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함으로써 공포심을 야기시킬 수 있었다.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쟁에서 사막 참호전투를 수행했으나 미국의 표적정보획득기술에 의해 참담한 파괴로 패배했다. 미군은 군사위성으로서 감시위성, 통신위성, 항법위성 등과 무인정찰기, 합동감시표적공격 레이더 체계 등 다양한 감시자산의 중복운용으로 표적탐지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걸프전쟁에서는 15%에 불과하던 표적탐지가 이라크전쟁에서는 70% 이상으로 향상되었고, 실시간 정보공유로 신속한 표적처리능력은

주 9) 조영갑, 「한국심리전략론」, 1998.



수 분에서 1시간 이내로 정밀타격능력이 향상되었다. 그 결과 이라크전쟁 지도부나 군대의 지휘통신체계는 100% 감청되었고 또한 누군가에 의해 항상 감시받고있다는 심적 불안감을 갖게 하여 인간의 기본욕구인 생존욕구에 따른 전투의지 상실 및 전장이 탈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라크전쟁에서 나타난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쟁양상 변화를 유도하였는데 첨단 정밀유도무기의 공격을 당한 이라크인들은 정밀성과 파괴성의 위력에 심리적 공황을 갖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표적 하나에 정밀수준의 폭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 1,000대의 항공기와 9,000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해야 했으나, 이라크전쟁에서는 한대의 F-117 스텔스기, 1기의 정밀유도무기는 표적 10피트 이내의 타격 오차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은 정밀유도무기로서 토마호크미사일, 통합직접공격탄, 전자폭탄, 벙커파괴탄, 슈퍼폭탄, 폭약없는 폭탄 등을 이용하여 숨어있는 핵심표적을 찾아 무차별 파괴보다는 적의 핵심부분만 효과적으로 공격하여 통제하는 효과중심작전을 실시했다. 이와 같이 이라크전쟁은 과거의 전쟁개념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선별된 핵심

표적에 시간과 장소, 정확성이 보장된 효과 위주의 공격에 대한 심리적 충격과 무기체계의 정밀타격으로 이라크의 전쟁지도부, 군인, 일반주민들을 전쟁공황으로 빠뜨리게 하는데 충분했다.

특히 지상군, 해군, 공군 등 합동성이 강화된 신속한 전격전은 이라크 전쟁지도자들에게 심리적 마비를 유발시켜 전쟁의지를 파괴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지상군의 주공은 작전적 중심인 도시들을 우회하고 전략적 중심인 바그다드에 전략적 목표인 사담 후세인을 비롯한 전쟁지도부를 전격전으로 공격하여 전쟁지도부 및 군대와 민병대들에게 전쟁공황을 일으켜 전의를 마비시키고, 응집력을 파괴시킴으로써 최단기간 내에 최소의 피해로 전쟁을 종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전격전은 대통령궁에 숨어있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쟁지도부 요원들에게 심리적 마비를 갖게 하여 정상적인 전쟁지도력을 상실시켰다.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후에 투항한 공화국 수비대 소속 함브라비 장교는 증언에서 “공화국 수비대는 미군의 정확한 표적탐지로 숨을 곳이 없었다. 또한 미 지상군의 일일 평균 80~100km 전격전의 속도는 이라크군으로 하여금 전투준비 및 심리적 여유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이라크군 지휘자들은

주 10)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 종합분석, 2003.



심리적 마비로 지휘통제를 할 수 없었고, 미군이 바그다드로 진격한 2003년 4월 5일, 극심한 공포와 패배의식에 빠져 누구도 미군을 향해 총을 쏘거나 교전할 의지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군복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병사도 발생했다”라고 했다. 따라서 적이 어디에서 자신을 표적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또는 표적으로 선정되고 있는지, 적이 어떠한 무기로 공격할는지 또한 어디에서 공격받게 될는지 모르는 미군의 전격전을 통한 전장의 불확실성은 이라크군의 심리적 마비를 더욱 증대시켰으며, 그 결과 당시의 이라크 전쟁지도부와 군대, 일반 시민들에게서 더 이상의 충성심이나 질서, 명예심은 기대할 수 없었다.

4. 다양한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리전

미국은 이라크전에서 자국의 이익과 유리한 전쟁환경을 조성하고 전쟁명분을 찾기 위한 맞춤형 심리전도 병행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31일 국정연설에서 이라크를 이란,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의 위협성을 정치·외교적 활동과 정부성명발표 등을 통하여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고립시켰다. 또한 미국은 유엔 무기사찰단을 통하여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 보유 및 테러지원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다시 부패한 사담 후세인의 독재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 전쟁명분을 찾기 위한 국제적 활동으로 대외심리전을 실시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의 정당성과 세계의 반전여론 차단을 위해 이라크전에 서방국가들을 참전시켜 정치적·군사적 당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전쟁의지 표명으로 외교적·심리적 압박을 하고, 유엔권위를 무시한 일방주의 무력행사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선전했다.

미국은 자국민들에게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위협 제거가 미국 안보 및 세계평화에 절대적 해결책이고 반미적인 사담 후세인 정권 제거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홍보하였다. 미국정부는 또한 정책 및 전략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장기적·안정적 석유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미국의 국가 에너지정책보고서는 2003년 미국에서 소비된 석유의 2분의 1이 수입석유이고, 2020년에는 수입석유 비율이 3분의 2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장기적·안정적 석유공급선 확보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석유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처의 확보이며, 21세기 국제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보라는 미국의 손익계산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였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전쟁에서의 전사자 및 포로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신부여로 군인 및 참전가족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일명 「제시카 린치 일병 구하기 작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매스컴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때 전쟁 중에 미군 포로의 처참한 모습이 이라크 TV방송에 방영된 이후 침체된 미군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세계평화의 파괴자이자 이라크 국민의 독재자로 묘사하여 국가통치권자로서의 리더십을 약화 또는 파괴시키는 심리전을 실시했다. 미국은 이라크 고위 정치지도자들의 망명설과 사망설을 유포시키고, 2003년 3월 20일에는 후세인 대통령궁에 미사일 공격으로 후세인 대통령과 두 아들인 사담 우다이, 사담 쿠다이의 사망설을 미국 CNN 및 아랍 알자지라방송 등 세계 매스컴을 통해 세 차례나 확대 보도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까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사망설을 적극 언급하고 나섬으로써 신뢰성을 증폭시켰는데,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백색심리전을 실시하여 이라크 내부의 동요를 노리는 맞춤형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소 결 론

이라크전쟁에서 심리전은 지금까지 군사

작전의 보조전력으로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핵심적인 주요전력으로서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심리전 가용매체를 통합하여 적에게 심리적·물리적 파괴를 일으킴으로써 입체화된 작전을 진행시켰고, 이라크전에서 사용된 미군의 첨단 무기와 정보체계들은 과거의 물리적 전쟁에서 효과중심의 전쟁으로 전쟁의 양상을 뒤바뀌 놓았으며 각종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리전은 효과위주, 속도위주의 미래전에서의 전장환경에 적합한 수단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적용했던 선제저지 안보전략, 충격과 공포의 군사전략은 미래전에서도 활용되어질 것이며 우리 한반도에서도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쟁수단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의 신전략과 작전술을 벤치마킹하여 심리전과 유기적으로 배합함으로써 현대전에 적합한 한국군 고유의 심리전 수행체제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장차전에서의 심리전 양상과 적용방안

1. 개 요

미래의 전쟁양상은 첨단과학과 군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장지역의 확대와 우수한 정보능력을 갖춘 첨단 정보 및 과학전으



로서 전장공간이 지상, 해상, 공중, 수중은 물론 사이버 및 우주공간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효과중심의 정밀타격이 증대되고 핵심적인 표적선별로 적 중추신경을 무력화 하는데 주안을 둘 것이다. 이러한 효과중심의 통합전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중심으로 구축된 전장통제체계를 기반으로 기존의 전장기능별 운용체계를 발전된 C4I체계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동시킴으로써 전력운용의 동시성과 통합성을 달성시켜야 한다.

그러나 장차전은 무기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발전 즉, 전투원의 전투 의지와 관련되는 심리전분야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쟁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도록 강요해 왔다. 또한 이와 같은 전쟁은 전쟁수단을 통해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여 왔으며, 이러한 전쟁수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Science)과 술(Arts)로 구분할 수 있다. 과학(Science)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충격이나 살상의 피해를 주기 위한 무기체계와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인 능력을 말하고, 술(Arts)은 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운용능력 즉, 전략·작전·전술 능력과 인간을 교육이나 생활속에서 마음을 변화시켜 의지화하고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정신전력

등을 말한다. 심리전은 전쟁수단중 술(Arts)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고대로부터 최근까지 전쟁양상의 변화와 함께 많이 변화되어 왔다. 심리전이란 사람을 상대로 마음을 끌어들이는 것으로서, 전쟁양상이 변화하면 심리전 양상도 변화하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른 심리전의 양상 변화와 대응방안은 장차전에서 전쟁승리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심리전 사례들도 당시에는 체계적이지 않았지만 술(Arts)적인 전쟁수단의 일환으로, 전쟁승리를 좌우했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현대전에서 필요한 세 가지 적용방안 즉, 인간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어 심리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대중매체(Mass Communication)의 변화와 인간에게 물리적 힘으로 충격과 위해를 주는 전쟁수단의 변화, 한반도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전 적용방안 등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한다.

2. 대중매체(Mass Communication)의 변화에 따른 심리전 적용방안

대중매체(Mass Communication)의 발달은 심리전의 양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대중매체는 직접적인 심리전의 수단으로서 수단의 변화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이라크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시간 전쟁상황이 동시에 안방까지 중계되는 상황에는 대중매체 그 자체가 심리전이라고 할 정도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영상매체와 전파매체의 영향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모되어 전개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심리전은 누가 영상매체와 전파매체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전파매체의 대표적인 것은 라디오, 무선 통신, 인터넷 등이고 이 매체는 광범위한 지역과 무제한의 대상자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전파매체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전쟁 초기전투시 정부의 오보에 의해 국민들에게 많은 혼돈을 주어 혼란과 공황을 유발했듯이 전파매체의 내용면에서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심리전 성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시에 전파매체의 장악과 활용능력을 확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된 보도를 통한 전파매체 활용은 필수사항으로서 심리전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영상매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TV를 들 수 있다. TV는 시각, 음향, 전파가 통합된

종합매체로서 속도성, 동시성, 광역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전파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에 전파장애를 받는 한계성과 수신인과 수신시간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라크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영상매체가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코만도솔로¹¹⁾를 이용한 이라크 방송망 활용으로 다국적군의 방송이나 전장상황을 CNN방송이 실시간에 중계함으로써 이라크군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까지도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고 더 이상의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우수한 무기로 무장된 이라크의 국경수비대도 전투한 번 제대로 못하고 포로가 되어 버리는 현상을 보았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심리전 형태가 과거의 간접적 방법에서 현대의 대중매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직접적 방법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3. 전쟁수단의 변화에 따른 심리전 적용방안

전쟁수단이 변화함에 따라 전쟁의 양상도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제한에서 탈피하여 전·후방이 존재하지 않는 Global화라 할 수 있다.

주 11) 라디오 및 TV방송·유선통신, TV 및 인공위성 수신체계 전파방해가 가능한 항공기(EC-130E).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동시 전장화’라는 현상으로 변화했는가 하면 전쟁에 참여하는 자도 군인과 비군인이라는 구분이 없어지고 전 국민이 전쟁요원이 되는 총력전화가 되었다. 무기의 파괴력은 위해를 끼치는 정도의 크기에 따라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기체계는 최초 창이나 검과 같은 자연의 힘을 이용한 무기에서 화약을 이용한 무기로 발달됨에 따라 파괴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후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여기에 맞서는 소련과 함께 미·소간의 핵 군비경쟁은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동서간의 핵 군비경쟁체제가 와해되면서 전쟁의 규모와 강도면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즉, 전쟁은 규모면에서 특별한 상황의 변동이 없는 한 전면전에서 국지전으로, 강도면에서는 저살상 고비용의 첨단 과학전으로 방향이 급선회하였다. 현대전은 미국이 이번 이라크전에서도 보여주듯 효과중심의 정밀타격전이나 비선행, 비대칭형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장차전에서의 심리전도 최첨단 정밀무기의 등장으로 어느 특정지역, 대상,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즉, 어느 특정지역의 전장연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기상, 지형, 도시의 발달 정도와 더불어 주민의 성향 및 의식구조, 경제력까지 각종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심리전이 필요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송과 전단작전, 사이버전이 수행되고 과학화와 첨단화가 수반된 고품격의 심리전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미래의 심리전은 전쟁의 강도와 규모가 축소된 반면 통신 및 각종 매체의 발달로 심리전 영역이 확장되어 다양한 심리전매체와 수단이 통합된 통합 심리전 수행체제로 발전되고, 이렇게 확대된 심리전은 미래 전장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기능이 될 것이다.

4. 한반도의 환경변화에 따른 심리전 적용방안

심리전 적용과 관련하여 대중매체, 전쟁수단과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주변환경이다. 한반도는 다른 어느 지역과 달리 남북이 분단된 상황하에서 미·소 냉전체제의 최후의 산물로 아직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으로, 남과 북은 동일민족이지만 정치 및 군사적으로는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대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심리전은 남북이 중무장으로 대치된 적대관계와 단일민족으로 통일된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동반자로서의 양면성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개해야 할 심리전은 대치된 적을 제압하는 일과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



확대하여 국가의 재통일에 기여하는 심리전을 동시에 전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나 기만의 단기적 목적이나 일회용 심리전은 지양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심리전은 원대한 국가와 민족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데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요소를 수반해야 하는 특수성을 요구한다. 분단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는 많은 혼란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진행시켜야 하며 심리전도 민족의 발전과 전진을 저해하거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차전에서 북한의 심리전 수행 방법과 체계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북한은 이라크전에 대해 미국이 이라크의 전쟁지도부를 없애거나 매수 및 변절시키는데 심리전을 적극 이용했으며 또한,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승리하는데는 고도의 심리전이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심리전에 대한 경계경보를 내리고, 심리전의 중요성 인식과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도 현대전쟁에서 심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평시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심리전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한 국가적·군사적 차원에서 민·관·군의 통합 심리전략을 발전시켜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대외심리전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현재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한경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간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국가목적 실현에 도움이 되면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자국의 목적 실현에 장애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주변국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협력하여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상호 협력관계를 위한 대외심리전 수행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VI. 결 론

이상과 같이 심리전은 고대로부터 최근의 이라크전쟁까지 적용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 6·25전쟁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투의지와 관련된 심리전이 적용되어 전쟁과정 속에서 국면을 전환시키거나 전세를 역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장차전에서는 과거의 전쟁에서 적용된 간접적인 심리전과는 달리 각종 대중매체 즉, 영상매체와 전파매체의 발달로 인해 직접적인 심리전 형태로 변화될 것이며 최근에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첨단 과학의 심리전 양상으로 더더욱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군사력의 충돌을 통해 힘의 우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지만 미래의 전쟁은 단



순히 군사력에 의한 힘겨루기식의 전쟁에서 진일보하여 정치, 외교, 경제, 과학, 문화 등의 다각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전쟁형태로 다양화되고 영역도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의 심리전 대응방식은 너무 미온적이다. 1958년 12월 1일 ‘희망의 소리’ 방송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대북심리전 방송을 실시해 오다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현재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또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점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안보의식과 대적의식이 희박해지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핵개발과 자국내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노동당 비서국 통제하 국가정책 차원에서 가용역량을 총동원하여 심리전매체를 개발하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대남심리전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으며 특히 미래전에서 전쟁의 주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심리전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군사전문가와 관련 실무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더더욱 필

요한 때라 하겠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과거 전훈분석을 통한 현대전에의 적용이다. 전쟁은 평시에 예행연습이나 실험이 불가능하므로 평상시의 전사연구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에게 전쟁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과거 전쟁 속에서 옛 군인들이 처했던 상황과 조치방법을 역지사지하여 현재 및 장차전을 위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과거의 명장 맥아더 장군과 군사전문가인 영국의 Brian Bond 교수도 전사연구를 통한 간접경험을 강조하였듯이 전사연구는 평상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과 이라크전에서 적용된 심리전 사례들을 도출, 분석하여 이를 장차전에서의 심리전 수행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전쟁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듯이 앞으로 다가올 장차전도 어떻게 변화할 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장차전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실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005.
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1995.
3. 노암 홈스키, 「미국의 이라크전쟁」, 북막스, 2002.
4. 김재두, 「이라크전쟁」, 한국국방연구원, 2002.
5. 합동참모본부, 「심리작전의 이해와 실제」, 국방부 근무지원단 인쇄소, 2001.
6. _____,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심리전 수행방안」, 2004.
7. _____, 「21세기 전장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심리전 방향」, 2002.
8. _____, 「국방심리전 정책발전 세미나」, 합참인쇄실, 2005.
9. _____, 「심리전 중·장기 발전계획」, 2005.
10. _____, 「현대전에서의 심리전 역할과 중요성(CD 교육자료)」.
11. _____, 「이라크전쟁 종합분석」, 2003.
12. 합동교범 3-14 「합동심리작전」, 2005.
13. 김종만, 「한국의 안보정책과 심리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6.
14. 조영갑, 「한국심리전략론」, 서울, 팔복원, 1998.
15. 정윤무, 「현대정치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0.
16. 이광현, 「현대사회와 심리전략」, 서울, 도서출판 파일, 1993.
17. 국군심리전단, 「한국전쟁에서의 심리전」, 서울, 2000.
18. _____, 「미 육군 전투심리전의 역사」, 서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향우인쇄, 2002.
19. _____, 「심리전과 심리작전」, 서울, 범신사, 2003.
20. 이재윤, 「특수작전의 심리전 이해」, 서울, 집문당, 2000.

우리말 고운말

애국가 노랫말을 바로 아시나요?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2.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3.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
4.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1.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2.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후 령〉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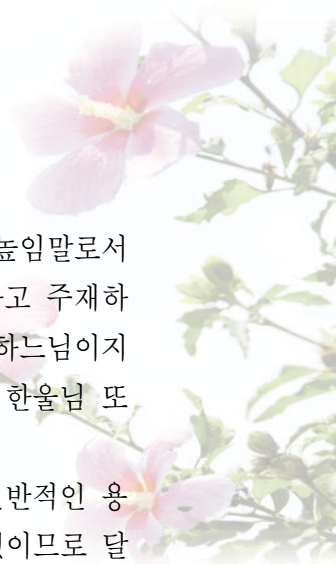
애국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있게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애국가 노랫말을 정말 정확하게 쓸 줄 알고,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쯤이나 될지 궁금하다.

사실 애국가 노랫말의 뜻과 정확한 표기에 대해서 자세한 교육을 받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그저 노래를 따라서 배운 기억뿐이다.

애국가의 노랫말 가운데에서 잘못 적거나 잘못 발음하기 쉬운 말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느님이 보우하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부르는 사람이 아주 많다. 성악가의 독창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뜻에 차이가 있는 낱말이다. 하느님은 하늘의 높임말로서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신앙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며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리는 절대자이다. 이 뜻을 가진 말의 표준어는 하느님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천도교에서는 한울님 또는 한얼님, 카톨릭에서는 천주님으로 부른다.

애국가는 특정 종교의 이념이나 사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애국가는 국민 모두의 약속으로 정한 것이므로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애국가에서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보우하사’를 ‘보호하사’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두 단어는 뜻이 다른 말이다. 보우하다라는 말은 신이나 조상의 혼백 등이 보호하고 도와주다란 뜻이고, 보호하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뜻인,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또 ‘보전하세’를 ‘보존하세’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형태와 뜻이 모두 비슷비슷하여 헷갈리기 십상이다.

‘보전하다’는 잘 보호하여 안전하게 하다. ‘보존하다’는 잘 건사하여 남아 있게 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이다. 자칫 잘못하면 혼동하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

보전하세와 보존하세의 뜻이 아주 비슷하니, 둘 중 어느 것을 쓴들 그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애국가의 노랫말은 나름대로의 이념과 사상을 지니고 있는 국가(國歌)이므로 바르게 써야 한다.

2절에 나오는 어구인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에서 ‘바람서리’를 ‘바람소리’로 노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뜻에서 큰 차이가 있다.

3절의 ‘가을 하늘 공활한데.....’에서 ‘공활한데’를 ‘광활한데’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공활하다’는 텅 비어서 몹시 넓다, ‘광활하다’는 지역이 몹시 넓다, 전망이 트여 넓다란 뜻이다. ‘광활하다’는 광활한 영토, 광활한 전망 등의 표현처럼 쓰는 말이다. 공활하다와 광활하다는 뜻과 쓰임이 모두 다른 말이다.

이처럼 애국가의 노랫말에는 발음이 비슷하거나 뜻이 비슷해서 종종 잘못 쓰이고 있는 낱말이 여럿 있다. 애국가는 우리의 얼을 담은 노래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사람의 자세를 담고 있는 것이 애국가이다. 따라서 애국가를 부를 때는 항상 몸가짐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바르게’ 노래해야 한다.